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에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 1221호
4월 15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기독교총회
■ 문의
301-0153-7296-01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제가차 총회 제6회 임원회

이단 사이비 배격, 차별금지법 저지

북도발 한미동맹·한미일 공조로 봉쇄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국산신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17차 총회 제6회 임원회가 지난 3월 28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아문교회(담임 임형순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에서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장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부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루 12·7·10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약함 그대여 강함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약함 그 때에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드리며는 모습을 보여 우리도 곧 깨우침과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진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와 사경으로 이어졌다.

총무 장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3월 1 일(수) 일본 요코하마 로즈호텔에서 본 교단과 일본 하나님의교회 교단과의 선교협정을 맺은 것과 일본 지방회 장기별동아 총회장 김병목 목사와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장기별동아에 참석하여 영예를 나누기도 했다.

필리핀 장기별동아에도 참석하고 필리핀 모리아 산 선교센터(한미동맹)를 함께 드리고 교회의 시간을 가졌음을 보고했다.

이와 제부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순남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역자복지 기원, 교회주수번영, 교회명칭변경, 교역자 은퇴 보고사항 등이 결의되었다.

주요의무사항으로 72차 정기총회를 오는 5월 15일(월) 은혜와전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총회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이단 사이비의 횡행으로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평등을 받자하여 차별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저지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해마다 국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북한의 핵 도발 악유이 자승자박이 되도록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연대적으로 가는 상황에 방심하여 감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로 불평등한 일을 겪지 않도록, 좌편향 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회에서 임원들은 이단 사이비의 횡행으로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평등을 받자하여 차별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저지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해마다 국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북한의 핵 도발 악유이 자승자박이 되도록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연대적으로 가는 상황에 방심하여 감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로 불평등한 일을 겪지 않도록, 좌편향 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목양 시평

서울광장에서 음란한 동성에 축제는 불허되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은 소위 쿼터문화축제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행부는 서울광장의 전지광장, 동원광장, 서원광장 사용을 모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란한 동성애행사를 불허해야 한다.

발설 수변에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에 쿼터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음란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다. 더군다나 외국인의 대다수까지 가세하여, 인종이라는 발미로 대한민국의 미풍을 해치고 내정을 건전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모습을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동성애를 좋아하고 즐기는 시민들의 행태에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들과 자녀를 자녀들이 보게 되어 참으로, 신리적, 여가문화에 즐거워 하는 기회의 침탈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와 대항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분명해 나타나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울광장 사용의 목적이 명확히 나온다. 제3조에 보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향유, 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대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에서 음란성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적이 있는가?

서울광장 사용에 대하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의 구성원도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설령 그들이 사용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서울시장은 이를 알기든지 수리(受理)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제3조 1항).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광장의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선용'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에게는 신교의 변경 및 취소(제3조)와 사용금지(제4조)의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이인영은 동성애 축제 사용을 매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굳이 동성애 행사를 계속하라는 것은 단순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문화가 아니라, 저들의 '장학', '성평등' (영성평등이 아닌)을 통한 이념을 심어주고, 네오마르크스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번 행태를 일면서도 서울광장 사용을 허락한다면 시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

서울시는 이렇듯 윤석열 시비와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이용되는 동성애 축제를 하는 사이에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물려주어야 한다.

마침 7월 1일 같은 시간대에 '청소년친화적 회복콘서트'가 진행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서울광장에서 이미 동성애에 음란한 축제는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고 그 행사가 대한 불만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과감하게 청소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콘서트로 자리를 할애해야 한다.

서울시는 동성애 음란 행위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이는 서울시민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재산이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서울시민들이 선택하여 세운 공직자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건전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에 배반으로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2023년에는 서울시의 일꾼이요,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 장소인 서울광장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를 회복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一助)하기를 바란다. 동성애 쿼터 문화에 대하여 불수리(不受理)할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 장에게 촉구한다.

-한국교회인문학



'믿음과 마음의 확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히 11:1~3, 시 57:6~7)



조숙목 목사

사람의 운명은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8) 하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히 11: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는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진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총체이며 생각을 수용하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분별무상의 생각을 가리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렬 4:8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 함이 없습니다. 성경말씀 중에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말씀들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믿음과 마음의 확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문제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인권보도조치 때문에 마지 않던 인권침해 상황처럼 보도되었고, 이 사건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이라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저지되었다.

이에 전국 38개 대학교 323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학생을 합법화한다 전국교수연합(이하 동연)은 편향적 이념에 기반한 거짓 언론에 시로장해 국민의 진정한 인권인 인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소아성애, 동성애 성 착취를 제지 및 성추행 사건 건의 보도를 막아 학부모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조치를 즉각 폐지하라

2022년 4월 14일(수)에 대한 성 착취를 제지 유 포하고 성추행을 해서 징역형을 받는 최정호(당시 26세) 사건은 단순한 성 착취 사건이 아니라 소아성애, 동성애 등의 문제였다. 35명의 어린 남자들이(11~13세)에 피해자인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은 피해자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인권보도조치 때문에 마지 않던 인권침해 상황처럼 보도되었고, 이 사건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이라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저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아성애, 동성애, 다성애 등을 성 소수자의 인권으로 주장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지침위원회와 함께 소수 인권보도조치를 제정하여 인권보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이미 깊숙이 침투한 소아성애, 다성애, 동성애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러는 다음 세대에게 위 위 유해

대해 무분별한 보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패배를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정호에 의해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아동의 인본은 물론 향후 불쌍한 것이 모는 불특정 다수 당사 자의 인본,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의 인본까지 지킬은 저러는 아닐 수 없다.

전국 38개 대학교 323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학생을 합법화한다 전국교수연합(이하 동연)은 편향적 이념에 기반한 거짓 언론에 시로장해 국민의 진정한 인권인 인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소위 전대 대안을 소위 시로장해 동성애는 물론 다성애, 소아성애 등을 소수 소수자의 인본이라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편향된 이념에 시로장해 탈북인과 탈북아민들의 인권 등 북한인권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진정한 인본을 침해하고 있는 연식대가 소위 개탄스럽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편향된 이념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장 등으로 계속해서 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다각적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저지 않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한방에 반하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 기 위한 이념적 집착이 되어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한방에서 보편적인 국민의 알권리와 인본보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인권보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명한다. 만약, 인권침해적 작위를 지수할 경우에는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4.4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아성애, 동성애 성 착취를 제지 및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막아 학부모들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인권보도조치를 즉각 폐지하라.

2022년에 어린 남자들이에 대한 성 착취를 제지 유 포하고 성추행을 해서 징역형을 받는 최정호(당시 26세) 사건은 단순한 성 착취 사건이 아니라 소아성애, 동성애 사건은 피해자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인권보도조치 때문에 마지 않던 인권침해 상황처럼 보도되었고, 이 사건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사건이라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저지되었다.

‘죄에서 해방케 하는 유일한 방법’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3월 20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에 위치한 순복음반송교회에서 3월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삼동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대표기도, 홍전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종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8:1-8 말씀을 본문으로 ‘죄에서 해방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성령의 법 안에서 지배를 받으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고 거룩의 삶을 이루는 유일한 방



법’이라며 “우리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환무 목사(순복음사범이념지는교회)의 한글기도, 전임회장 조경환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반송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기지방회에서 만나기를 기원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

아갔다.

부산지방회 전임회장 한명집 목사(76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은 4월 3일(월) 발인일: 4월 6일(목) 장 지: 국립대전현충원

정기지방회 열고 신임 임원 선출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

3월 27일(월) 부안순복음교회(담임 홍종학 목사)에서 제39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현배 목

사의 사회, 서기 고경태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전수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막 10: 17-22 말씀을 본문으로 “주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정기지방회 고현진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2부 회에서는 회원평화와 교회선언, 회순회와 등기종 회무를 처리하고 부안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마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홍종학 목사(부안순복음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정음은혜와진리교회) △사무 김현배 목사(모이있는교회) △서기 고경태 목사(새벽별교회) △재무 전수희 목사(은혜사랑교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조재호 목사)는 지난 3월 27일(월) 제39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동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기도,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윤정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마 5:8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표본이시며,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단의 발전을 위해 지방회의 발



전을 위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지방회 동역자 김경준 목사, 민병훈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방회장 조재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정기지방회를 시작해 모든 보고사항과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선거를 통해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에 김경준 목사, 총무에 오병은 목사, 서기에 정재광 목사, 재무에 강원석 목사, 회계에 김윤배 목사를 선출하고, 신앙회장 이문근 목사의 진행으로 2차 예산안을 다루고, 충북지방회 제39차 정기지방회를 폐회했다.

로 추대하고, 부회장에 김경준 목사, 총무에 오병은 목사, 서기에 정재광 목사, 재무에 강원석 목사, 회계에 김윤배 목사를 선출하고, 신앙회장 이문근 목사의 진행으로 2차 예산안을 다루고, 충북지방회 제39차 정기지방회를 폐회했다.

주말씀교회 성전이전감사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용원 목사)는 지난 3월 1일(토) 주말성도회(표현자 목사)에서 성전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경호 목사의 전임기도에 이어 표현자 목사(주말성도회)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서성명 목사의 기도와 부회장 김요진 목사의 성경봉독, 김진숙 전도사의 특송 후 이어 지방회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가 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표 목사의 소망했던 기도였다고 밝히며,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선지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인간 대 인간은 존귀의 대상이나 지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믿음과 구

원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또한 하나님도 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되어 인위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난을 당해야 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이 부활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날에서 오는 주일성도회를 표 목사가 맡아 처리하도록 전권임권을 주시며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기에 고전 4:2 말씀처럼 맡은 자의 구원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된 종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다무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 김진현 목사의 한글기도와 2부 순서로 신계교회 원로 이상돈 목사, 전임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사와, 지방회장 박용원 목사의 권면, 김진숙 목사의 특송 후에 표현자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전임회장 최영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주말성도회에서 준비한 오찬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제32차 정기지방회, 지방회 신임 임원 선출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3월 28일(토) 오전 11시 한우리교회(담임 김진희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영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윤득주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영환 목사의 담임 6:9-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생을 취하라”는 제목의 설교, 전임회장 최영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김영환 목사의 사회로 모든 보고 사항을 보고 받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3부 식사와 교제의 시간에는 한우리교회의 삼경과 헌신으로 맛있는 점심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날 선출된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득주 목사, 부회장 김은수 목사, 총무 오영택 목사, 서기 정진희 목사, 재무 이종철 목사, 회계 황용식 목사.

제39차 정기지방회 개최, 한마음 되어 뜨겁게 기도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 총무 나부교)는 지난 4월 3일(월) 오전 11시 한리

복음교회(이광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호 목사(한리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회장 최영진 목사(한리복음교회)의 기도와 전임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롬 12:35-4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복있는 종이 될 것을 당부하고 촉구했다.

2부회는 회장 유관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회소에 따라 진행하여 각부 보고와 결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제39차 임원은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회원들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차를 마시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목회자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장근 목사) 제72차 정기지방회가 지난 4월 3일(월) 오전 11시 예수이름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아전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골 4:2-4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나기 위하여”라는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삶과 목회의 현장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자는 이 땅에서 살아나기 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며, 성령충만을 받아 끝까지 사랑을 감당하기는 목회자와 교회가 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회계 이현숙 목사(서문순복음교회)의 한글기도, 직전회장 정진관 목사(해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끝내 의장 김장근 목사의 주례로 열린 지방회 회에는 전임회장 이창모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서기 목사의 회임평과, 의장 김장근 목사의 개회 선언 후 총무보고로 이어졌다.



회계 보고에서는 71차 기간 동안의 수입

보고와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72차 임원선출에서는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가 선출되어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사임해 이끌어 가게 되었다. 전임회장 변인영 목사의 폐회기도로 은혜가운데 마치고, 예수이름교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차를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시온성순복음교회 장로·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형순 목사) 의장부 시

온성순복음교회(담임 유정숙 목사)는 지난 3월 28일(월) 오후 4시 장로·안수집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경환 목사(

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이옥희 목사(현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문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잠 19:2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회계·재무 김경순 목사(현음교회)의 한글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경준, 유종현 집사는 안수집사로 임직받았다.

권면으로는 김용환 목사(주내순복음교회)가 맡았으며 은근용 목사(선한아문교회)는 축사로 큰 격려와 축복을 베풀었다.



신임 임원 선출 및 감사패 전달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4월 6일(목) 오전 11시 태백산기독교원(강계산 전도사)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림을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정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박원희 목사의 대표기도, 김순기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확고한 믿음에 대해 설했다.

이어 엄기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정기지방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엄기호 목사를 선출했다.
이어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는 유영림 목사에게 군부대 군사지원 감사패를 전하고 지방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63차 정기지방회 개최

광주지방회

푸른 계절 속에 대하꽃 향기가 만발하고 벚꽃이 거미마다 춘상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때에 광주지방회(회장 조운주 목사)는 지난 3월 31일(금) 순복음은행의강남교회(김영호 목사 사무에서 제63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배정혜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조운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히 10:32-39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담대하다. 둘째 인내하다. 셋째 믿음을 가지라"며 설교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목회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설교 후 주무회계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와 전지방회 회장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기쁨의 기쁨을 임명(노시용 목사, 김경희 전도사)하고 서기 배정혜 목사 전 회의록 낭독 후 각 위원회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선거관리 위원장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새 임원을 선출(회장

김영호 목사, 부회장 배정혜 목사, 서기 신지숙 목사,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하고 신임회장 김영호 목사는 직전지방회에 1년 동안 수고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임임원들에게는 성경의 자세로 헌신하고 임명패를 증정했다.
그리고 신임회장(김영호 목사)이 나누신 세지면 화합마를직관장에서 준비한 한우고기로 식사를 하며 영육 간에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식사 후 직전회장인 조운주 목사는 모든 회원들에게 한우 1근씩 선물해주었다. 인근 금강산 둘레길을 돌며 봄꽃 구경으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정기지방회 및 평택사랑의교회 이전예배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김동문 목사)는 지난 3월 27일(월) 오전 11시 평택시 청백리에 위치한 평택사랑의교회(담임 김연태 목사)에서 정기지방회와 평택사랑의교회 이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연태 목사의 사회로 최남순 목사의 대표기도, 평택사랑의교회 성도의 찬송,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6:5-13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평택사랑의교회(담임 김연태 목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전예배를 드리는 평택사랑의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

로를 보냈다. "한제의 사람들은 손에 띠고 장을 들고그것의 크기로가치를 평가하지만 야곱은 위급지경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손에 하나님을 놓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 또한 베드로의 교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전했다.
예배는 이어 조중순 목사의 축도, 이세연 목사의 헌금기도, 김연태 목사의 광고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평택사랑의교회 담임 김연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날 본대비사료로 1년 동안 예배방에 강제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도들이 굳게 믿을 가운데 다시 서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부터 다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고재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임원선출자는 선거관리 위원장에 김연태 목사, 선거 서기에 김정준 목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성경 말씀에 따라 행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방회장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헌금함에 넣고 모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선전위원장이 이름을 뽑으니 이세연 목사가 당당하여 모두의 동의에 차기 지방회장을 맡기로 했다. 부회장은 조중순 목사, 총무 김동문 목사, 재무박수진 목사, 회계 최남순 목사, 서기 김연태 목사 선출되고 차후 지방회 임원들은 논의 후 새로운 힘을 얻고 사역지로 돌아갔다.



홈페이지 : www.ucts.org

2023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명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와 목사(인)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교회의 교회화를 이룩할 줄 바라는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지역 내외 신학생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중심, 성령충만,
● 복음전파,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연락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재로22나길 8
3층 305호 3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부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성신대)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단으로부터의 증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 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등록금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기독교신학연구원(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비영리법인 사원 1명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기독교신학연구원(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각 1부
● 교회서 소속, 자치 증명서 1부(예제서)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과인간)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종사자에게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화·목요일 홈페이지에 일요일도 원
● 졸업생 사후에 유가족이 유언장이나 유언과 도록 그리고 성령충만 문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학과 발표 이후에 유가족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에서 등록 학생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신청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매일농성물집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간경,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3 (*고대대학교 수문서 교수님 임명으로 세계특허)

2)올리브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각막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카이로고)
3)타식물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갈락 : 홍화씨의 24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홍사대연구논문)

7)식이섬유 : 타식물(대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촉진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표됨

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적임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양방·중기, 양 무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씹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박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년초화학연구소 발표)



북향민(탈북민) 5쌍 합동 결혼식 거행

신길교회, 혼수와 신혼여행 교회 지원... 혼주 하객도 교회 성도들

서울 영등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교회와경제중앙협의회 대표회장)는 지난 4월 1일(토) 북향민(탈북민) 5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의 나라에서 새 가정을 꾸민 북향민들은 고령산-최영희 씨를 비롯해 박성삼-김진순, 박철진-김정옥, 염영환-박영금, 조필복-정선희 부부다.

한국에 이렇게 정착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북향민들의 막대한 사정을 알게 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와 성도들은 따뜻한 사랑을 모아 배려와 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

홀로 탈북해 가족이라고 신랑과 신부 단 둘 밖에 없기에 신길교회 성도들이 신랑 신부의 가족의 자리를 지켰다. 혼주석에는 평소 북향민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평구 박정민 박정규 이재식 이현철 정로부부(한동)가 있었고 신길교회의 성도들이 친지와 하객이 됐다.

주례자로 나선 이기용 목사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 생활을 하라 보면 디통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체에서 생활하며 겪는 어려움들이 내내에 쌓여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이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자꾸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길교회는 이들 북향민 신혼 부부를 위해 혼수와 피로연, 신혼여행을 지원했다. 또한 TV와 전자렌지 등 가전 제품, 양복 등 모두 성도들이 정성을 모았다. 채주도 신혼여행을 위한 호텔비와 왕복 항공권도 성도들이 후원했다. 여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부부학교 교육도 했다.

한편 신길교회에는 현재 북향민 1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새가족 4주 교육을 비롯해 일대일 맞춤 상담, 무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교회를 위한 아와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부활절 맞아 생명나눔 잇따라”

생명나눔예배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묵상하는 종려주일을 맞아 장거리전 환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늘고 있다.

예시령의장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전택 목사, 이하 본부)는 종려주일을 맞아 11개의 교회에서 1,844 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생과사의 기록에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

4월 2일, 종려 주일을 맞아 고양시 일산 사구에 위치한 거북한빛광성교회(담임목사 박승환)에서 생과사 나눔예배가 총 6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장기기증을 약속했던 박승환 담임목사는 다시 한 번 생과사 나눔을 약속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가까이 나눠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생과사 나눔에 함께하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이에 이날 1,06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함께했다. 거북한빛광성교회는 200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생과사 나눔예배를 통해 총 222명의 성도가 생과사 나눔을 약속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농천교회(담임목사 정진영)에서도 200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생과사 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정진영 담임목사는 “20여 년 전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각박(각박)을 했고, 2년 뒤에는 차남이 세상을 떠나며 뼈와 피부를 기증했다”라며 “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20여 년 전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각박(각박)을 했고, 2년 뒤에는 차남이 세상을 떠나며 뼈와 피부를 기증했다”라며 “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중앙교회(이종복 목사, 등대교회(박우신 목사), 새성심교회(박대부 목사), 생명생동전교회(박기환 목사), 안동개곡교회(이영철 목사), 청주신동교회(김학철 목사), 하곡교회(최은복 목사), 하남빛교회(신종은 목사), 한우리교회(김성은 목사)가 생과사 나눔예배를 드리며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었다.

본부 이사장 박전택 목사는 “종려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한국교회들이 생과사 나눔 사역에 동참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 시립의장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44(내선)

아신대학교, 재학생·교직원 식목행사 진행

아신대학교 한철하 박사 기념공원에서

아신대학교 새 학기를 맞아 지난 30일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아신대학교 한철하 박사 기념공원에서 진행했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약 2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식목행사는 본교 우산과 명예교수의 기증으로, 박정환 아주가, 대림병원, 세계교회 등을 식재했다.

우산과 명예교수는 “학교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구상원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신대학교는 학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사회복지선교학과로 세 도약을 이루어 가고 있다.



마포구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있는 유산”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3월 30일(목) 오후 2시 홍대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 대표로 대통령 주빈민(김경식 동장)의 각 직능별 단체장이 참여해 배움나무를 심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K-팝, K-드라마, K-영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그 동안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 다다 다시 생명을 찾아 새롭게 시작이 중요하다. 모두가 녹색의 날을 기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현일 상임이사는 “도시의 공동체 나무심기

등 자발적인 나무심기 생활화 운동 전개로 사마로 인 한 황사와 미세먼지 등 인한 피해를 줄여나자”라며, “마포구의 나무심기 운동은 미래의 아토피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있는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주빈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해정)와 동정협의회(위원장 권문수),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일남) 지회장 위원장님과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 정현일 상임이사 등 대원나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가족세션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션전도 아카데미 원장

세계인을 구원하는 무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할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영광한 온전 소수 민족을 선교하면서 전통민족을 하는 행사장에서 원주민을 전도했다. 채주도 한민족에서 백두산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구원 열차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간다.

비행기에서 여성목회원이 영접기도를 따라 하고 한국 주위교회로 파송된 영광산 호텔 지배인이 영접기도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들이 한자에서부터 타지에서부터 가능하다.

아이를 기쁘게,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세션 전도는 세계인을 구원하는 무기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능력이없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부르심에 감사드리다

가족세션전도 대표 총재 박영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션전도 대표총재
문화선교회/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392-6691, 0108730-2573

▼중국 양명산소수민족전도영광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에서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여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런길로 82(연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바깥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존 뉴턴의 거듭남



존 뉴턴은 어렸을 적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일곱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자 성격이 거칠고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열한 살부터 선원이 된 후로 그는 더욱 난폭해졌고 모든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의 선원 생활은 흑인들을 노예로 짐승처럼 사교하는 일을 하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론을 본받아란 책을 발견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눈물 흘리며 무릎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후 존 뉴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잘못을 정죄하고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을 율니교회에서 27년간 사역했다. 그전경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8년, 찬송가 305장 '나 같은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여 미국 민요 아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곡에 붙여 부르게 되었다.

이 찬송가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말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놀감사 생명을 하게 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날도 그 찬송을 부르는 이들의 마음속에 흥남하게 일하게 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조여서 자유원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만드는 놀라운 찬송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부활의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이른 새벽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발걸음이 바깥입니다.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맘으로 달려간 여인들.

천사의 놀라운 말씀과 만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무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무덤에서

새 피조물 된 새사람 내 모습과 만납니다.

진리 속에 있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진실로 심어야 할 인생 씨앗이 복음 씨앗임을 아면서...

옛적 마리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마 28장 부활의 아침 마리아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뉘고 만났음을 화상하면서...

부활로 이어진 그 무덤에서

무서움이 변하여 기대감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설렘과 기쁨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고 있는 지금도

또 다른 마리아들이 빈 무덤을 향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사설

부활의 기쁨 온 누리에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고전 15:4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다.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 놓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일 전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연거푸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만약에 수개월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도 보통 사람에 불과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고전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일이 헛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중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는 것은 헛것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다만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만 특

이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믿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 되고 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니 망해도 할지언정 망한 것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만일을 전제하여 논증한 것이다. 부활은 기록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누구도 부활이 못할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장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천일, 굴욕은 정치인들의 자기부정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외교 연설에서 일본이 한국 등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이제 말았다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에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오부치 일본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한다"고 했다.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노무현도 매국노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정권은 어디로 갔나? 이제형 다 대표는 제2회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외교"라고 했고, 원천적 굴욕에 버금가는 처용이라고도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른 결정을 천일, 굴욕이라고도 자기부정 아니냐?

노무현 정부에서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때 문재인 전(前) 대통령도 참여했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변하는 정치적 카멜레온 아니냐. 4년간 반일 물의를 하다가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니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토착제국이라고 몰아치더니 위안부 문제를

파기할 적 없더니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낙담당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국립한 아랍의 반대편에 대한 반대편에서 과거가 생각난다. 1967년 4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고위직으로 간첩을 발파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격렬하게 반대했다. 고위직으로는 만들 어 봐야 달릴 자가 없다.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고 했다. 간첩현장에 국외의왕들이 찾아가서 드러날지도 했다.

"고위직으로는 일부 부유층이 처벌을 받고 놀러 다니는 유원지" (서울대 변형준 교수 발언)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아랍은 훗날 한일관계 개선이 절한 일이라고 판명될 때 무어라고 변명을 할지 매우 궁금해진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군사인적인 시력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봐라.

"몸 가운데서 분장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리게 하겠나니" (고전 12:20) "너희는 모든 악과 독과 노함과 분란과 떠드는 것과 화평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엡 4:31)

제72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행 13:20-23)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2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3년 5월 15일(월)

4. 사무총회 : 5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2. 등 록 : 5월 15일(월) 오전 11시부터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3. 개회예배 : 5월 15일(월) 오후 1시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3년 4월 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병 목